

GPA概念 定立을 爲한 地理的 研究

김 주 환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I. 서론

1. 연구목적

지리학에서 누구나 사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진에 대한 관심만큼 사진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학습을 받을 기회가 그리 흔하지 않은 형편이다. 일부 대학에서 사진지리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사진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사진이 지리학에서 필요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리학 발전에 도움이 될 양질의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지리학, 사진 그리고 예술가의 접목을 통해 지리학의 발전은 물론 지리사진을 예술사진의 경지까지 끌어 올려 새로운 위치에 이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PA(Geo-Photo-Artist)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리학 연구자들에게 사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내용의 일부는 특강자료의 부분적인 인용과 요약이다.

II. GPA의 개념

1. 개념 정의

GPA(Geo-Photo-Artist)란 지리학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진예술가, 즉 지리사진예술가를 말한다.

2. 개념 구성

GPA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즉 지리학을 하는 사람(geographer)일 것, 사진을 아는 사람(photographer)일 것, 그리고 예술의 심미안적 감성이 있는 예술가(artist)일 것 등의 자격이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III. GPA에게 요구되는 자격

1. 지리 하는 사람(Geographer)

1) 지리관을 가진 사람

지리하는 사람은 확실한 지리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리학의 정의를 어떻게 하든 지표공간에서 인간활동의 전개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일반론을 터득하고 양자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자연지리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2) 공간개념을 가진 사람

지리하는 사람은 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지역이란 우리가 보고 만지는 실제적인 지표보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식되고 구성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추상성을 띤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땅을 일컬어 지표라고 한다면 이를 개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공간 또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리학의 연구대상은 지역이지 지표 그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리학에서 지역이란 인위적으로 선택된 지표의 일부로서 일정한 질서와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답사를 좋아하는 사람

지리학 전공자가 답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리적인 맛과 멋이 나는 사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목적성과 구체적인 답사가 요구되며, 답사를 통해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의 체문제를 즐겁게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4) 환경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환경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인간은 독립된 자연과 대립의 개념이 아닌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존재하느냐에 우선적인 발상이나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은 개발과 정복의 개념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지리적인 교육내용이 학습된 사람

인문지리학-자연지리학적인 선택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표 1>의 예와 같은 교과목을 대학에서 주전공이라고 할 정도로 학점을 이수되면 좋다.

(표 1) 지리학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예)

개론	자연지리,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 토양/생태지리
인문지리	사회지리, 문화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역사지리, 도시지리
방법론	사진지리, 지리조사법, 지리정보론, 지도학, 지리학사
지 지	오세아니아, 한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2. 사진하는 사람(Photographer)

1) 사진을 이해하는 사람

(i) 사진영상의 문제

사진은 철저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기본으로 하며 어느 예술매체보다도 도구 종속적 성격이 강하고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카메라가 만들어낸 상은 물리적 대상의 이미지를 인지하게끔 제시한다는 점에서 회화나 소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첫째 사진은 기계적인 기록이라는 기술을 통한 것이라는 독특한 시각적 속성이 있다. 둘째, 사진은

상의 기계적인 기원을 인식하므로써 특별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한다. 즉 자연과 인간이 협동하여 만들어낸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자연과 아주 똑같이 보이며, 상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의 차이는 보는 사람은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제시하는 대상사이에 있는 복잡한 차이를 인식할 때 문제가 된다. 결국 사진의 영상이란 ‘자연’자체도 아니고 현실적 자연의 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단순히 외계의 실제물과 동일시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 카메라 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른 차이, 필름의 문제, 회화보다 더 정확히 대상을 재현하는 점에서 사진은 그 전통의 정점에 있을 뿐이다.

(2) 사실성과 정확성

사진의 기본적 특성중의 하나는 제재 자체가 인간에게 가까운 현실성을 띄고 있으며, 또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가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록성으로 연결된다.

사실성의 기록으로서 ‘진실’의 문제는 카메라가 사람의 눈과 닮았다는 점에서 기록된 상은 거짓이 아니라는 신뢰를 묵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것은 사진기의 렌즈와 대상사이에 적절한 빛이 있을 때 대상의 사실성이 잘 나타난다는 기계적, 광학적 원리를 그대로 수공하는 것이며 그것은 보여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공한다. 또 사진의 사실성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의미하며 정확한 순간의 기록이란 순간의 단편을 영원히 동결시켜 시간속에서 죽어버린 순간과 그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3) 표현성

사진의 예술성은 기록적 성격, 예술적 감각, 창조적 정신에 집중된다. 사진의 내용을 표현하는 기법은 매우 다양하며 사진의 기계적 특성에 의해서 분류하여도 ① 사진의 사실성, ② Gradation, ③ 원근법, ④ 시공간의 표현, ⑤ 질감표현, ⑥ 초시각적 표현성으로 나눌 수 있다.

2) 사진예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

현대의 기계적 메카니즘을 통한 상상력의 세계로서 사진의 예술성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① 사진은 기본적으로는 이차원의 평면위에서 선·색·형태로써 표현되며 가시적 세계의 일상적 실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언어의 한 수단이다. ② 사진은 기계적 본질과 카메라를 통한 재현, 외적 현실의 묘사라는 계기가 결합된 영상의 세계이다. ③ 사진은 순간의 포착이라는 기술적인 면으로써 조형예술의 영역에 도달하는 ‘쉬운 예술’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기계적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시각예술로서 사실성을 추구한다는 발생적 의미를 지닌다. 그 결과 제조적, 창조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나 그 속에는 미적기술로까지 승화되는 미적가치를 실현하는 능동적·생산적 활동으로서 예술가의 예술충동이 개재되어 있다. ④ 사진적 메카니즘과 재생의 사진적 방식으로서 복제는 사진미학의 인식론적 근간을 형성한다. ⑤ 사진은 기술과 예술문제의 현대적 문맥에서의 접점이 된다. ⑥ 사진의 영상은 외적 실재로서의 자연 이미지이다. 허상으로서의 영상은 현실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차원에 서게 된다. ⑦ 사진의 사실성은 인간의 의식세계의 발견인 동시에 ‘기록성’을 가지며 정확성에 의

해 사실로 믿어진다. ⑧ 사진은 작가의 보는 눈을 통해 인간의 눈을 넘어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고 그것을 표현하려 한다. ⑨ 사진은 대중의 예술체험을 용이하게 하였고 인쇄기술과 함께 복제시대 문화의 근거가 된다.

3) 사진의 미학적 고찰이 가능한 사람

미학자들 가운데는 지각론에 입각하여 예술작품을 정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나 어떠한 체계나 제도속에서 예술작품은 정의된다는 '예술제도론'적인 입장에서 첫째, 이미 예술가로서 사회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예술작품이라는 것, 둘째, 스스로 예술가라고 자처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혹은 예술가 스스로 예술을 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 셋째, 비록 예술가에 의해 제작된 인공품이 아니더라도 예술가가 자연의 일부분이나 뒤상처럼 기존의 물건 중 일부를 선택하여 기존의 예술형식처럼 제목을 붙이고 화랑이나 전시장과 같은 일정한 공간속에 놓은 것, 넷째,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있어 왔던 기존의 예술적인 진로가 되는 형식이나 주제라 할지라도 새롭고 독창적으로 재해석된 것, 다섯째, 철학적·정서적·종교적·도덕적인 내용을 지닌 인공품 또는 날카로운 사회비판을 가하는 인공품은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이라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그저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수준의 단순한 지각의 차원을 넘어 사회성까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도 공인된 전시공간에 걸려 일반인의 평가를 거쳐야 예술작품이라는 또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사진작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

GPA는 현실적으로 사진작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정관의 정회원 자격기준을 보면 ① 대한민국사진전람회를 비롯, 본회 및 지부가 주최한 행사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또는 사진대전, 국내외 국제살롱 등에서 50점이상 득점한 자, 단, 최초의 입상, 입선, 사진 강좌 수료 또는 발표년도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만 4년이 경과된 자, ② 정규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한 자, ③정규대학 또는 특수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5점을 득한 자, ④ 전문대학 사진과를 졸업하고 2년경과 후 10점을 득한 자, ⑤ 개인전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사협이 인정하는 공모전에서 1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개인전은 연1회 한하고 동일 작품 전시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집은 2회 이상 발간하고 시험이 인정하는 공모전에서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 ⑥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이 경과된 자, ⑦ 전문대학 이상 사진과목 강사이상으로 1년이 경과된 자, ⑧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촬영대회나 공모전에 체계적으로 출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예술하는 사람

1)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

(1) 예술의 개념

‘예술’은 라틴어의 ars에서 유래하였다. ars는 그리스어의 테크네에서 나온 것이다. 테크네는 넓은 의미로서 기술일반을 뜻한다. 따라서 공작적(工作的)이거나 공리적(功理的) 기술영역에 국한시키지 않으면서 예술의 영역에도 편향되지 않고 이 양면을 포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형예술 이외에 요술, 코미디, 마술, 의술, 건축, 요리 전술, 정치 처세술, 변론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기술로서의 테크네에는 손으로 하는 기술과 인식의 의미로부터 발전한 이론적 지식의 의미로서 기술이다.

(2) 예술의 정의

예술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에 의해 주관적 기분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작품 속에서의 미적가치는 어떠한 가치가 예술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피어나는 꽃송이 같은 것이다. 가치는 처음에는 종교적이거나 도적적·실제적·인식적·기타 어떠한 종류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분리되고 세련되어지고 강조되고 생동감 있게 되고 본질적인 자각을 위하여 지각 가능한 매체속에 구현되게 될 때 비로써 미적인 것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예술의 기능은 예술적 표현과 인간가치의 구현에 의해서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은 자기표현과 자기초월의 양식이며 그것은 인생으로부터 유리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가치의 예술적 표현에 의해서 미적 가치가 창조된다.

이러한 예술은 모든 인간활동으로부터 성장되며 모든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익을 제공해 준다. 순수예술에 있어서 예술의 관심은 표현의 뛰어난 것과 진지한 감상에 의해 얻어지고 있으며 예술의 위치와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생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명확하게 이해된다.

2) 창작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작품이다. 따라서 예술은 창작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예술창작의 특성은 첫째, 자기 목적적일 것, 둘째, 정신의 창조일 것, 셋째 창조가 형상성 속에서 행해질 것, 넷째, 기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다섯째, 정신의 전체성을 필요로 할 것, 여섯째, 정신과 감각과의 밀접한 협동이 행해질 것 등이다.

3) 자유인·문화인·평화인이 되려는 사람

바람직한 예술인상은 자유인·문화인·평화인이어야 한다. 예술가는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울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예술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어야 한다.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또다른 심성으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예술활동과 예술작품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인이어야 하며,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술가 주변은 화합과 평화가 늘 곁들여져야 하기에 평화인이어야 한다.

IV. 지리사진 예술가의 정신

1. 예술가의 위치

1)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이러한 대명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할 때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인간의 문화는 자연과의 끊임없는 교섭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 주고받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표상에는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한다.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좀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 서로 비슷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인간이 자연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2) 인간과 시간과의 관계

“인간은 시간속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 등이 시간속의 유한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결국은 시간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예술활동은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무릇 예술활동이나 예술작품 등과 같은 문제도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리되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2. 이상적인 지리사진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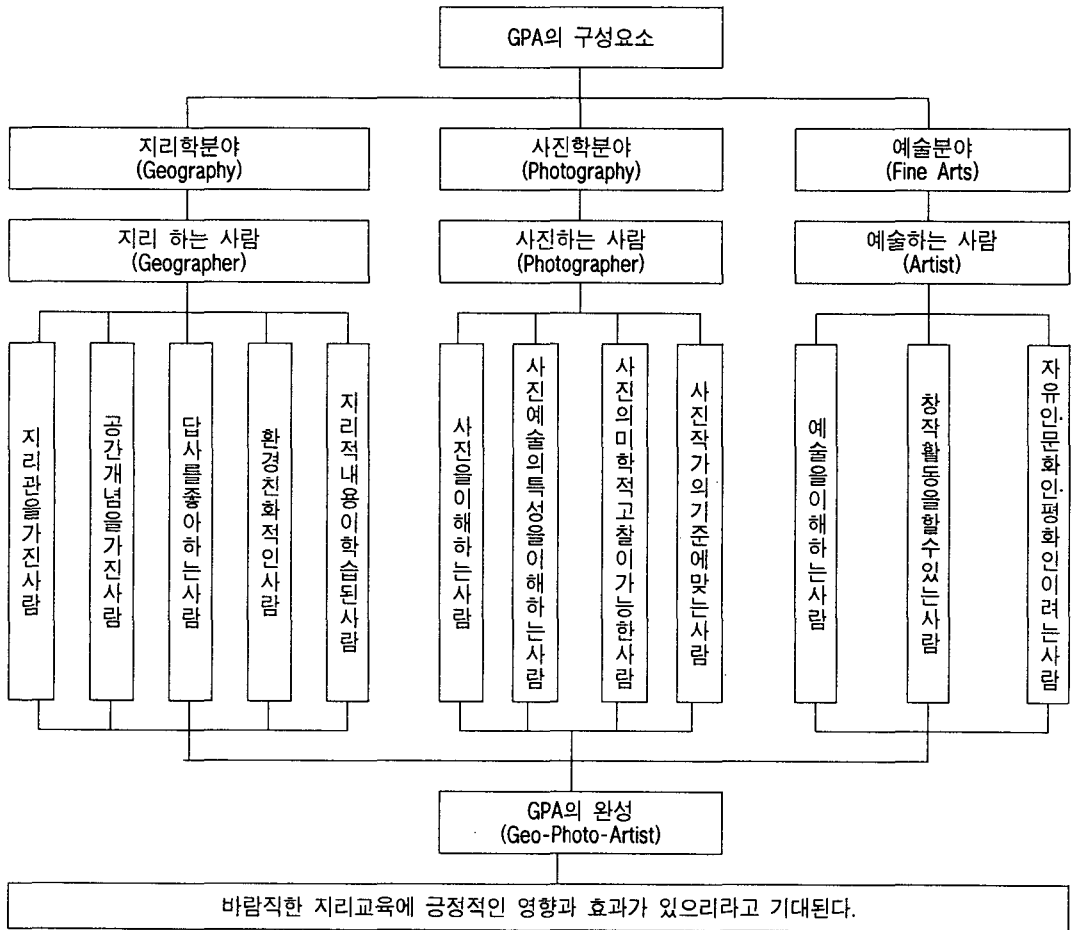
이상적인 지리사진예술가(GPA)는 지리학분야, 사진학분야, 예술분야로 구성되고 지리학 분야를 공부한 사람을 지리 하는 사람, 사진학 분야를 공부한 사람을 사진하는 사람,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때 GPA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분야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학습하고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1).

즉, 지리하는 사람은 지리관과 공간개념을 가진 사람으로써 답사를 좋아하고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지리적인 내용이 학습된 사람이어야 하며, 사진하는 사람은 사진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사진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진의 미학적 고찰이 가능하며 사진작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을 이해는 사람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자유인·문화인·평화인인 사람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훌륭한 GP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정신으로는 여러 가지 덕목을 지적할 수가 있다. 우선 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이상적인 GPA가 갖추어야 할 내용

GPA(Geo-Photo-Artist)란 지리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진예술가, 즉 지리사진예술가를 말한다. GPA가 되기 위해서는 지리학 분야, 사진학 분야, 순수예술분야의 종합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각 분야는 주전공을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다. GPA의 경우 지리학에서 출발하여 사진 분야, 순수예술분야를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 기타 타분야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한 뒤에는 현실적이고 제도권 안에 있는 사진작가가 되는 길을 모색하여 지리사진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리교육에 종사할 경우 좀더 깊이있는 내용을 피교육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예술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과 시간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예술인상으로서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이어야 한다.

文 獻

- 月刊新東亞編輯室 翻, 1980, 現代의 藝術家 1295, 東亞日報社.
- 安春根, 1974, 世界例話選 乙酉文庫 60, 乙酉文化社.
- 에른스트파셔 지음, 한철희 옮김, 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인문사회과학신서 14, 돌베개.
- Langer, S. K., 박용숙 역, 1993,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 와타나베마모루 지음, 이용병 옮김, 1994, 예술학, 현대미학사.
- 유진룡·박양우·우진영·이병두·용호성 책임편집, 1993, 예술경제란 무엇인가, 신구미디어.
- 이토우도시하루 지음, 김경언 옮김, 1994, 사진과 회화, 시각과 언어.
- 정한조·조인상, 1996, 공예·디자인강좌1, 사진이론과 실기, 시공사.
- 秋田實著, 김태한 역, 1996, 사진미학, 형설출판사.
- 한승철, 1983, 藝術로서의 寫眞의 美學的 考察,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어버트리어드, 1979, 藝術의 意味, 정음신서.
- 미셜라공 저, 김현수 옮김, 1991, 예술-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미진사.
- 강대석, 1995, 예술철학에의 초대, 동녘.
- 멜빈레이더, 버트람제섭 著, 김강명 옮김, 1994, 학술총서 3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 실천